

신비한 “망”

2025. 7. 14. ~ 9. 2.

신비한 특징과 쓰임을 가진 다양한 망을 탐색하며
즐겁게 놀이한 슬기튼튼 1반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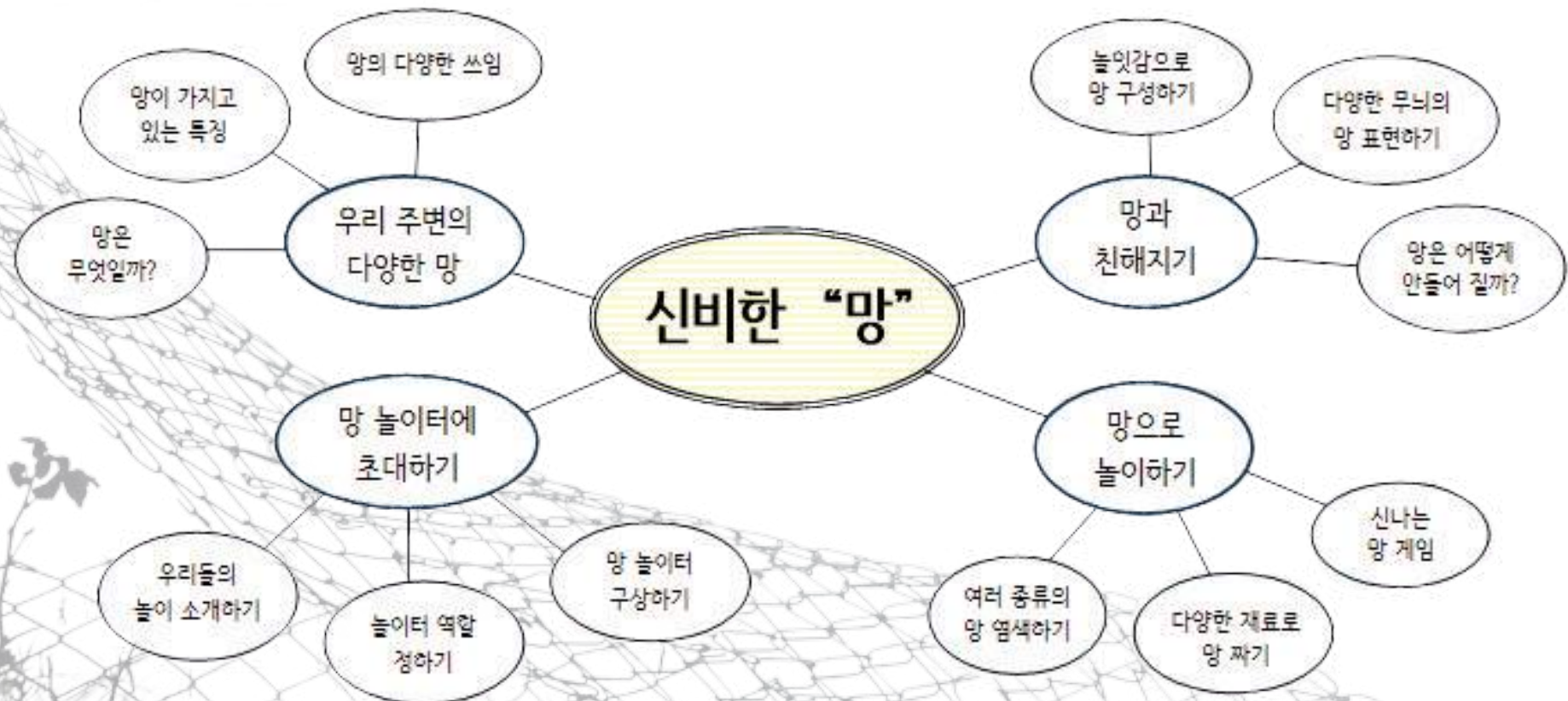
 슬기튼튼유치원



“신비한 망”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망”은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줍니다. 아이들은 날씨가 더워지며 바깥의 바람을 교실로 들이기 위해 창문을 열고 방충망 사이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점차 얇아진 옷의 짜임을 눈으로 직접 들여다 보게 되었습니다. 또, 구멍이 뚫린 바구니를 이용해 수확한 채소를 닦던 아이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던 “망”을 찾게 되고 탐색해보며 여러 종류의 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망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아이들에게 묻자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써요! 그물은 물은 지나가게 하고, 물고기는 못 지나가게 해서 잡아줘요!”, “우리 옷도 망이에요! 땀은 나가게 해주고 몸을 지켜줘요!”라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생활 속 망을 점차 하나 둘씩 찾아가며 호기심을 느낀 아이들과 다양한 망의 종류와 쓰임,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여러 방법으로 재구성하며 놀이를 새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신비한 망]을 놀이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소쿠리, 바구니, 천 등 유치원의 망부터 가정에서 찾아 온 망들을 늘려보고, 던져보고, 굴려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며 [신비한 망]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 (7.14. ~ 9.2.)



그물 망에 생쥐가
들어 갔어!
그물 망 안이
보이네~?



“우리 주변에 있는 망을 찾아보자!”



망으로 만들어진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망을 찾아보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망] 을 함께 읽어보며 망은! 공기와 물이 지나가게 해준다는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공기와 물이 지나갈 수 있는 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고, 집에서 쓰이고 있던 망을 찾아 유치원에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함께 여러 망들의 쓰임을 생각해보고 각각의 망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해보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렁이는 뼈가 없어서
흙 속을 뚫고 지나갈 수
있지만 방충망은
뚫을 수 없어!



방충망은 더러운 뽕파리가
들어오지 않게 막아 주~!



빨래 할 때
사용하는 세탁 망은
세모 모양이네?



네모 모양이야! 물이 쓱쓱 지나가겠어~
플라스틱 과일 바구니는?



매미를 잡을 수 있는 채는
매미 포도 망 구멍이 작아!



매미가 잡히면 절대
도망갈 수 없지~



바구니를 벌리면
공이 쏙 들어가!

공을 잡으면 튕겨나가지
않게 닫아야 해!

소쿠리에 손잡이가 있네?

내가 설매처럼
소쿠리를 밀어줄게~

바구니가 쪽~
늘어나서 공이 잘 들어가네?!

둘이서 같이 들어
갈 수도 있어!

그럼 세 명도
들어올 수 있을까?

배 망이 가면으로 뽀싹!

배드민턴 채로 치니까
공이 퐁퐁 튀어!

뒤에서 끌 수도 있네?!

엉덩이가 딱딱하!

“망은 딱딱하기도 하고~ 부드러웁기도 하네?!”

가정에서 찾아 온 망과 유치원에서 찾은 망을 탐색하던 아이들은 “소쿠리가 커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설매 같아요~”,

“배 포장 망은 늘어나서 가면으로 쓸 수 있어요!” 라며 망을 이용한 놀이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운동 도구인 배드민턴 채와 축구 골대, 플라스틱으로 된 장바구니, 소쿠리, 과일 포장 망 등을 이용해 자신만의 놀이를 만들어가고 자신의 놀이 경험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아이들은 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놀이에 푹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변의 망은 네모 모양으로 생겼어~”

소쿠리 통통배 놀이, 공 던져서 바구니로 받기 놀이, 망으로 된 가면 놀이 등을 즐기던 아이들은 점점 더 망의 생김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망이 가지고 있는 네모 모양, 세모 모양, 마름모 모양, 오각형 모양, 원형 모양 등을 자세히 들여다 본 아이들은 직조 놀이를 통해 네모 망을 만들고, 줄넘기를 이용해 울퉁불퉁한 망을 구성하며 놀이하셨습니다.

이러한 놀이를 하며 줄로 된 망은 모양이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줄로 된 그물 장바구니를 그림으로 표현하며 다양한 망의 무늬를 창작하였습니다.

직조는 줄이랑 줄이랑 만나면 엮어지는 거야~ 머리 따는 것 같네?!

직조가 풀어지지 않게 풀칠을 해줘야지~

줄은 모양이 계속 바뀌네?! 내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지~!

줄넘기도 모양이 바뀌는 줄이야~ 네모 모양이네? 물고기 그물이다!

과일이랑 채소가 썬지 않게 구멍이 뽕뽕 뚫린 장바구니야~ 멋지지?



“망의 무늬를 자세히 들여다 볼까~?”

여러 형태의 망을 찾아보고 구성해보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본 아이들은 망을 눈 가까이에서 두고 보는 모습을 보이며 자세히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자세히 볼 수 있는 도구인 광학펜을 유아들에게 제시해주자 망의 모양과 함께 망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 졌는 지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질에 따라, 빛의 양의 따라 다르게 보여지는 망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유아들은 망의 신비를 느끼게 되었고 이를 실물 자료와 사진 자료, 관찰 자료로 나누어 전시해보며 망의 짜임을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광학펜으로
찍은 사진이랑 똑같지?
보석 모양이야~

세탁망은 지그재그 모양으로 생겼어~

이 옷은 꽃이랑 어깨, 배의 모양이 달라~

양파망은 양파가 썬지 않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네?!
네모구멍이 뽕뽕 뚫렸어!

바지는 자세히 보니
여자친구들의
똥은 머리카락 같아!



비닐 같은 잠바는
안늘어나!



치마는 안늘어나는데
바지는 늘어나!



운동 조끼는 땀이
잘 통해! 편인가봐~



역시 딱딱한 바구니는
늘어나지 않지!

그렇지만
과일을
잘 지켜주~



바지가 엄청 잘 늘어나~

내 바지는 안늘어나는데?
뭐가 다르지?

“늘어나는 망은 어디에 쓰일까?”

광학펜으로 망을 자세히 들여다본 아이들은 망의 재질에 따른 쓰임을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우리 교실에 있는 망을 의논하여 고르고, 망의 재질을 알아보기 위한 여러가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망과 늘어나지 않는 망, 딱딱한 망과 부드러운 망, 구멍이 큰 망과 구멍이 작은 망 등
다양한 망이 가진 특징을 살펴 보며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을 나누어 보고, 놀이를 통해 알게 된
망의 특징과 쓰임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베드민턴 공은 손으로
꼭 들어가! 그래서 공도
통통 튀기지~



선동 지퍼 매
는 안늘어나는데
어떤 재질인지
확인해 보았!



자전거 안
줄은 바느질
한 거 같고, 운동
장 망은 손으로
만들어졌을 거
같아!



아이스크림 봉투에
있는 망은 손으로
만들어졌을 거
같아!



바구니는 손으로
만들어졌을 거
같아!



딱딱한 바구니는
바람이 잘 통하지!



잠바구이는 안이 다 보여~



배드민턴 공을
잘 지켜주는
망!

“망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

늘어나는 힘! 신축성이 있는 면은 우리가 활동하기에 편한 옷과 공 놀이를 할 수 있는 베드민턴 채가 되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망가지지 않도록 쇠로 만들어진 망은 방충망이 되고, 과일이나 채소가 망가지거나 썩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된 부드러운 망은 과일 포장 망이나 양파 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곤충을 채집하기 위해 만들어진 망은 바람이나 물이 잘 통하지만 안에 잡힌 곤충은 나가지 않게 촘촘하게 되어있고, 투명하여 곤충이 잘 잡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이 잘 보이는 특징을 알게 되자 다양한 망을 이용하여 곤충을 채집하며 놀이하였습니다.

망은 다 볼 수 있어!
망으로 잡은 매미
허물이 늘어나~

매미야 조심하 올라가!

양파 망으로도
곤충을 잡을 수 있어!

높이 있는 곤충은 안돼~

우리는! 망이 있어서
물에서도 다 구해줄 수 있지!

잠자리채는 엄청 길게 늘어나~
높이 있는 것도 잡을 수 있어!

우리가 잠자리채로
하수구에서 애기 매미를 구했어!

채집 통은
망이 아니야!
곤충이 숨을 쉴 수 없어~



딱딱한 소쿠리는 아프니까 방석을 가져왔지!



천이 얇아도 소쿠리는 안늘어나!



천이 뭉쳐져 있으면 안이 잘 안보이는 데 쪽~욱! 펴면 안이 잘 보이네?!



“망 박사가 된 우리들은! 더 많은 놀이를 만들어내지!”

망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며 특징과 쓰임을 알게 된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의논하며 망을 이용한 놀이를 더욱 자발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천을 이용해 시원한 배를 만들기도 하고, 소쿠리에 두 명이 함께 앉아 흔들 의자 놀이를 하거나 소쿠리가 딱딱하니 방석을 가지고 와서 침대 놀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늘어나는 망을 직접 입어 보며 패션쇼 놀이를 하고, 구멍이 뚫린 기둥 블록을 이용해 기차 길을 구성하며 놀이하셨습니다. 친구와 함께 만든 놀이를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니 아이들은 패션쇼 놀이에 크게 흥미를 갖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이스 치마도 망!
무늬 벨트도 망!
포장 망도 망이야~

조끼에 줄을
달면 망토로
변신할 수 있어!



배 망은 잘 늘어나~
내 허리에 꼭 들어가지!

기차 길에 구멍이 있으니까
바퀴가 시원하겠지?



“패션쇼를 하려면 멋진 옷이 필요해~”

다양한 망을 입은 친구들의 놀이에 흥미를 느낀 아이들은 다 같이 패션쇼 놀이를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망을 찾아 입던 아이들은 교실에 있는 망을 우리 모두가 나누어 입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집에서 작아진 옷들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가정과의 협조를 통해 작아진 옷들을 유치원에 가지고 온 뒤, 어떻게 새로운 옷을 만들 지에 대한 의논의 과정을 거쳐 작아진 옷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옷을 가위로 자르며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옷의 모습을 다양하게 변형 시켰습니다.

또, 다른 옷을 어떻게 디자인할 지 구상을 해보고, 염색 물을 만들 수 있는 습자지를 이용하여 옷 염색 놀이를 하였습니다.



색종이는 물 색깔이
안 변하네?
물이 계속 투명해!



노란색 습자지를 더 넣으니까
색이 더 진해지네!

물이 분홍색으로
변하고 있어!



습자기 색깔이 점점 연해져~



숟가락으로
빡빡 저으니까
색이 더 진해진다~

염색하니까 옷이 다 젖어버렸어~



물을 짜고 말려보자!



알록 달록 하게 염색할 수도 있어!





스포이드로 염색 물을
톡 톡 떨어트리니가
뽕뽕이 무늬가 되네~



습자지에 물을 뿌리면! 색도 진하고 모양도 이쁘!



젖은 옷에 습자지를 톡톡 찍었어~



노란 티에 보라색 물을 뿌리
니가 검은 색이 되네?



염색 물을 떨어트리니가
색이 바로 염색 되었어!



“패션쇼 옷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습자지를 이용해 다양한 색의 염색 물을 만들어 염색을 해보기로 한 아이들은 염색을 위한 도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염색 물이 담겨진 통에 옷을 넣기에는 통이 작아 어떤 방법으로 염색하면 좋을지 생각을 모으던 아이들은 실험 도구인 스포이드와 집게를 염색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정하였습니다. 스포이드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곳에 염색 물을 뿌리고, 집게를 이용해 물이 뿌려진 곳에 습자지를 톡톡 찍으며 자신만의 생각들로 옷을 디자인하며 놀이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놀이들로 가득한~ 신비한 망 놀이터에 초대합니다!”

망을 주제로 놀이하며 자신들이 만든 놀이가 교실게 가득해지자 아이들은 동생들을 초대하여 재미있는 망 놀이를 소개해주고 싶어하였습니다.

망 놀이터에 동생들을 초대하기 위해 놀이 공간을 더 넓게 구성하고, 어떤 놀이들을 소개할지 놀이를 의논하고,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역할을 맡아 소개 연습을 하고, 초대 포스터를 만들며 준비하였습니다.

구멍에 줄을 넣고 빼면 돼~



광학펜으로 보면 우리 눈보다 자세히 볼 수 있어~



동그란 곳을 잡았다가 손을 놓으면 염색 물이 들어와!



우리가 염색한 옷을 입고 같이 춤추자~



패션쇼장으로 오세요~ 춤도 출 수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여 초대 준비를 마치고! 동생들과 다른 반 친구들을 초대하여 우리가 찾은 망의 특징들과 놀이 방법을 소개하고 함께 놀이하며 우리가 느낀 다양한 망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 싶은 곳에
광학펜을 가져가 봐~



통통 튀기는 배드민턴 놀이하러 오세요!



이렇게 보면 어떤 무늬인지 볼 수 있어~



여기에 넣고, 빼고!
왔다, 갔다!
하면 돼~

직조는
옷을 만드는
방법이야~



어떤 색으로 염색하고 싶어?
언니가 알려줄게~



책상을 닦은 휴지도 염색이 됐어!



동생아~ 팍 잡아!
내가 통통배 밀어줄게!



그물 골대가 있는 축구 하러
오세요~ 공이 들어가면
그물이 춤을 추요!

신비한 “망” 놀이 주제를 마무리 하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경험하는 매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발적으로 탐색하는 힘을 지닌 아이들은 무더운 여름이 되자 얇아진 옷차림과 곤충 채집을 위한 망, 바람이 들어오는 방충망,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 망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망’이라는 재료는 유연하고 변형이 가능하며,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기에 좋은 매체라고 생각되어 놀이 주제로 선정하였고, 망에 대한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하자 그 동안 흔히 보지만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던 망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해결하는 모습 속에서 탐구 놀이의 시작 점을 느꼈습니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하였고, 망을 이용해 숨기기, 잡기, 던지기, 감싸기, 엮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놀이를 확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협응력, 협동심, 문제 해결력을 길러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기존에 없던 놀이를 직접 만들어보며 ‘창조의 즐거움’과 자기 표현의 기쁨을 경험하고, 익숙한 사물도 새롭게 바라보는 관찰력,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탐색 경험,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유능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세상을 관찰하는 눈, 스스로 탐색하는 태도, 친구와 협력하는 힘을 키워나가길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새로운 놀이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며, 일상 속 사물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워나가길 기대합니다.